

북클럽 1주차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소(小)토리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10월 10일(월요일) / 장 소 : CLC 1층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고○주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권○성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윤○영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최○수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1주차> : 자체 OT [자기소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 책 소개]를 서로 이야기.</p> <p>고○주 : 올해 들어 수업을 들으면서 사회에 대해 돌아볼 시간이 많았다. 그 중 한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사회 전반의 건강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는데, 개인의 건강도 노력이 없으면 얻어낼 수 없듯 사회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임을 알게 됐다. 즉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 가지고 사회 건강에 나서지 않는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서 나는 이 모임을 통해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 보고자 겪어보지 못한 사회적 약자의 삶을 이해해 보려고 한다. 비록 약 8주 분량의 짧은 북클럽 기간이지만 첫 시작으로는 무리없이 배움을 얻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p> <p>권○성 : 우리 모두 사회적 혹은 개인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 역지사지로 입장을 헤아리며 약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무시와 동정심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독서와 토론을 통해 팀원들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이바지하고 싶다.</p> <p>윤○영 :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이 동성애자, 노인, 장애인 등 우리가 주제로 정한 '사회적 약자'들을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느꼈다. 나조차도 그들이 '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 대놓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보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떠올리면 그냥 약한 사람, 사회로부터 소외 받는 사람 등</p>							

그들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만 있을 뿐이다. 이렇듯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은 어떻다'고 정의 내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사회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절한 시선을 정립하는 것이다.

최○수

: 사회적 약자들은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며, 사회에서 주류와 비주류가 갈리는 이분법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타의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작게는 개개인이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시선을 키우는 게 필요하고, 크게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므로, 이번 북클럽을 통해 그 방안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2022년 10월 10일

참가자대표 : 윤○영

북클럽 2주차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소(小)토리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10월 14일(금요일) / 장 소 : CLC 1층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고○주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권○성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윤○영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최○수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2주차> : 딸에 대하여 -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인식하고, 미디어에서 비치는 성소수자의 이미지에 대한 의견 공유. 책의 전개 과정에서 공감, 동의하는 등장인물을 뽑아 그 이유를 발표. 책의 흐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토의. 그 후 팀원들의 의견에 대해 서로 평가.</p> <p>고○주 : ‘딸에 대하여’를 읽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인물은 교수 부인이다. 그는 사회적으로 성소수자들을 보는 시선을 대표하는 눈이면서도 모든 것을 남의 일처럼 말한다. 이때 나는 ‘나도 어찌면 교수 부인 같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자리에서조차 성소수자들이 나오는 다른 타자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고 만약 내 가족이 성소수자라고 커밍아웃을 했을 때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p> <p>권○성 : 책의 등장인물 중 ‘엄마’의 심정에 가장 큰 공감을 했다. 기성세대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컸음에도 딸이기에 어느 정도 포용해 주었다. 심지어 부모님의 원하는 바람직한 딸의 애인의 모습과도 거리가 멀었다. 만약 딸의 애인이 이성이더라도 경제적으로 좋지 못했으면 반대했을 수도 있다.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단순히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보며 유일하게 남은 가족인 딸과 인정하기 힘든 딸의 여자친구와 같이 산다는 것도 엄마의 큰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 ‘엄마’의 심리에 몰입하기 쉽다고 느꼈다. 또한 보다는 많은 성소수자 연예인과 유튜버 등이 미디어에 나오면서 인기가 많아지고 사회적 인식이 점점 좋아진다고 보지만 양면적으로 이미지가 가벼워 보이는 부분도 있다고 느꼈다. 단순히 가벼운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 아</p>							

니며 성소수자가 미디어에 보이는 모습들이 프레임에 갇혀 전부로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ex. <남의 연애>,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경험을 인터넷에서 소재로 사용함 등) 그들이 동등한 대우와 권리를 요구하는 동시에 성소수자의 미디어 생태계의 현실을 돌아보며 노력해야 한다 생각한다.

윤○영

: '딸에 대하여'를 읽는 동안 '레인'이라는 인물에 감정이입을 가장 많이 했다. 레인은 주인공인 '엄마'의 딸인 그린의 여자친구다. 레인은 자신의 여자친구 때문에 당장 오갈 데가 없어 그린과 함께 그린의 어머니의 집에 들어가 거주하게 되는데, 함께 사는 과정에서 어머니는 제 딸의 여자친구인 그린을 무시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시선이 많이 보인다. 하지만 어머니의 그런 시선에는 그린의 잘못이 없다. 굳이 이유를 말해보자면 그린은 '동성애자'이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무시에도 불구하고 그린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어머니가 별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 등 어머니와 공생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이 맥락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성소수자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는 오직 '성소수자'라는 이유 때문에 부정적으로 비춰진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레인은 잘못된 것이 없지만 '성소수자'라는 이유 하나로 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소수자'를 떠올리면 보편적으로 가볍고, 활동적이며, 괴짜 같은 성격을 상상하곤 한다. 그러나 레인은 그러한 편견과는 아예 반대되는 인물로 표현되고 있다. 어쩌면 작가는 글 속의 레인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비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최○수

: 등장인물 중 '엄마'에 공감이 갔다. 자신의 딸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화가 나지만, 애지중지 키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딸의 상황을 외면하거나 연을 끊지 못하는 양면적인 태도에 인간적인 공감이 갔다. 특히 자신이 과거 딸에게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라고 교육했지만, 자신의 딸이 동성애자인 걸 맞닥뜨렸을 때 현실을 부정하고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화내는 모습에서 나와 비슷하다고 느꼈다. 동성애를 관용할 수 있다고 외쳐도, 결국에는 동성애가 자기 가족의 일부가 될 때 납득할 수 없고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책에서 엄마는 동성애자 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데, 혈연을 위해 가치관을 굽히는 이런 부분은 존중하고 싶다. 아마 나라도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선택을 할 것 같기 때문이다.

20 년 10 월 14 일

참가자대표 : 윤○영

북클럽 3주차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소(小)토리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10월 28일(금요일) / 장 소 : CLC 스테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고○주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권○성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윤○영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최○수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3주차> : 딸에 대하여 - 본인은 동성애에 대해 긍정, 부정 중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한 이유를 근거로 발표. 그 후 팀원들의 의견에 대해서로 평가. 성소수자와 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 가치관에 대해 발표. 나아가 현재 사회는 성소수자를 억압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 공유.</p> <p>고○주 :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해야한다고 생각하기에 동성애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의하면 인간은 ‘안정적’ 사랑을 원한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이 점이 동성애의 감정으로도 표출될 수 있지만, 성장하면서 겪는 사회·문화적인 요소들이 이를 표출치 못하도록 하기에 현재로서는 동성애가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과거와 비교해 현재는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상’의 정의와 기준, 범주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개선해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동성애의 경우 학습적으로 발현되는 것보단 내면에 내재된 본능적 성적 선호도가 후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본다. 즉 같은 사회에 살아가야하는 동성애자들을 이성애적 시선으로 가둘 것이 아니라 수용하려는 개인의 자세가 필요하고 이 자세를 보편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p> <p>동성애를 수용하는 것과 관련해 합당한 기준이 필요하며 갈등에서는 다수(이성애적 관점)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때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소수자 입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동성애는 영영 배척돼야 하는가?’이다. 합당한 기준과 다수의 의견에 대한 윤리도 존중하지만 변하는 시대에 맞춰 윤리는 유동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 즉 법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하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윤리</p>							

관... 이 경우 사랑의 윤리관일 텐데 이 또한 다양한 보건 및 성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랑의 방식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미디어 전공생으로서 동성애를 소비하는 미디어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시로 최근 성소수자와 관련한 방송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누구에게나 당연한 사랑의 방식이 희귀한 상품처럼 소비되는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다. 나는 미디어에서 동성애나 성소수자를 단순 상품으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 자체를 비추며 그들의 삶을 현실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책 '딸에 대하여'에서 엄마가 본 딸의 치열한 목소리처럼 말이다. 미디어와 관련해 이런저런 문제점이 많다고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미디어는 광범위한 영향력은 좋은 정보를 더 크게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분명 존재한다. 그렇기에 매체를 잘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사랑의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길,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

권○성

: 태어나면서 혹은 성장하면서 사랑의 종류에 따라 동성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며 제도로 인정하게 된다면 사랑에 대한 감정이 모호해지며 혼동할 수도 있다. 생각하기에 부정적이다. 더불어 동성 결혼을 허용함으로써 다른 비정상적인 성애도 허용하는 사회가 올 수 있다 생각한다. 동성애는 인종차별, 성차별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태어났을 때 부여받는 인종과 성은 선택적인 유무가 아니지만 동성애는 성적 지향성으로 선택하는 부분이다. 또한 성소수자들이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말한다면 반대로 특정 성향을 싫어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혐오와는 다름을 명백히 밝힌다. 서로의 가치관과 의견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 혹은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윤○영

: 인간의 자유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사랑할 자유도 그런 맥락에서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동성애 혹은 양성애를 한다고 해서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 오히려 동성애를 금지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이 강경한 이성애자인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했나? 당신을 겁탈하려고 했나? 아니다.

성소수자들도 그냥 사랑할 권리를 달라고 하는 것뿐이다. 성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시선, 이유 없는 비판과 그것에 선동되는 사람들은 잘못을 짓지도 않은 성소수자들을 잘못된 사람, 틀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딸에 대하여'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레인과 그린은 성소수자로서 서로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는 그들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잘못됐다고 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랑의 형태가 아니라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민수는 사랑이 육친애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번식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성애만이 가능하며 이것이 윤리적이라는 주장했는데 나는 여기서 큰 반감을 가졌다.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는 것에 대한 정답은 없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뿐이다. 동성애가 비윤리적인 사랑은 아니다. 그저 이성애와는 '다른' 사랑일 뿐이다. 동성애가 비윤리적이라는 주장을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다른 나라에 대입해보면 그 나라는 비윤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것은 모순이지 않은가? 또한, 모두가 윤리적인 사랑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는 불륜을 하고 성적관계만을 맺는 파트너를 구하기도 하는 이 세상에서 과연 윤리적인 사랑이 동성애에만 한정되는 게 맞을까?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호주 등 무료 29개국에서는 동성결혼이 가능하다. 심지어, 이 중 10개국에서는 동성 부부에게 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이처럼 몇 국가들은 성소수자들을 더 이상 사회적 약자로 보지 않고 그들이 사회적 약자에서 벗어나게끔 제도를 마련해줬다. 당장 동성결혼에 대한 법을 개정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나라를 본보기로 삼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과 포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수

: 나는 동성애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반대한다.

첫 번째로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허용했을 경우, 사회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가족'이라는 개념이 흔들릴 수 있다. 가족이란 본래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되지만, '부모(父母)'라는 개념이 남성과 여성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부모의 개념과 혼인 제도를 재설정해야 하고, 동성애는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기에 입양 절차도 확대 및 간편화해야 하는 등 급진적인 사회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윤리적 의식이 상실되거나 따돌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윤리 의식, 즉 인간성은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시작되고, 사랑이라는 감정은 곧 육친애(肉親愛)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육친애는 가족 간의 정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가족의 개념이 흔들리는 순간 아직 유가(儒家)적 관념이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수 있다. 정리하면 동성애를 허용했을 때 우리 사회가 입는 피해가 꽤 클 것으로 예상되기에 허용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동성애에 대해 본능적인 거부감이 들기 때문이다. 나는 동성 친구에게서 성적 매력을 느낀다는 부분에 공감할 수 없다. 사랑이 인간의 본래적 요소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친한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라는 의미에서의 사랑(仁)은 인간의 이타적 본성(인간성)에 기인하지만, 동성애나 이성애 등 성애(性愛)의 경우에는 생물의 자연적 본능에서 기인한다. 즉 번식을 위해 존재하는 본능이 바로 성애라는 것이다. 동성애자끼리는 과학 기술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자연적으로 자식

을 낳을 수 없다. 따라서 동성에게서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느끼는 동성애는 인간의 자연적 본능에서 뒤틀린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나는 동성애자가 부르짖는 것은 “사랑할 자유를 달라!”가 아닌 “욕구할 자유를 달라!”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일부의 사랑이 아닌, 그 일부의 욕구를 위해 사회 전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진정한 부부 관계의 사랑은 동반자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사랑과 이성으로서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랑을 모두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는 부부 관계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을지라도 개인적으로 관용할 수는 있다고 본다. <딸에 대하여>의 ‘엄마’의 경우처럼 말이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뜻이 동성애를 혐오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단순히 공감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만약 주변에서 나의 친구가 정말 동성애를 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친구의 의견 자체를 아끼는 마음(仁)으로 관용하고 존중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이런 관용의 태도가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20 년 10월 28일

참가자대표 : 윤○영

북클럽 4주차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소(小)토리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11월 4일(금요일) / 장 소 : CLC 스터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고○주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권○성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윤○영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최○수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4주차> : 나무 - 정년퇴직의 기준이 되는 나이를 낮추는 등의 정책으로 노인을 의도적으로 경제활동에서 제외하는 법안은 합당한지에 대한 토론. 그 후 팀원들의 의견에 대해 서로 평가.</p> <p>고○주 : 정년퇴직의 기준은 만 65세 전후로 정년퇴직의 기준이 되는데, 사실상 55~65세의 노인은 100세 시대에서 절반밖에 살지 않았다. 점점 늘어가는 기대 수명 가운데 '현 정년퇴직 연령을 기준치보다 낮추는 것이 옳은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단연코 '아니다'라고 답할 것이다. 한편 책 나무에서는 일용직에서도 노인을 배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사회가 칭하는 노인이라는 이름은 약자의 이미지가 내재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책의 내용은 이 말이 비약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자아실현과 자본주의의 측면에서 노동은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점과 더불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 우리는 정년퇴직의 기준을 낮출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일할 기회와 시간을 보장해주고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에서 말했듯 '우리도 언젠가 노인이 될 것'이니 말이다.</p> <p>권○성 : 정년퇴직의 기준이 되는 나이를 낮추는 것에 반대한다. 먼저 대기업에서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며 트렌드 파악으로 인해 젊은 사람들을 요구하며 노인도 아닌 중장년층에게도 압박이 들어와 사퇴하게 되는 현실을 들은 적이 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기에 사회의 문제와 직결된다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를 넘어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며 노인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젊은이들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금액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가에서 정년퇴직의 기준이 되는 나이를 낮추게 된다면 훨씬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p>						

청년들의 짊어져야 하는 무게는 커지게 되며 더 나아가 비혼과 저출산이 늘어가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생각한다. 또한 책에서 말하듯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어간다. 노인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단순 해치워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우리의 차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

윤○영

: 자본주의의 1원칙이 효율성이라는 것은 동의하는 바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정년 퇴직을 해야하는 것이 맞고 이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에서 정년 퇴직을 하는 노인들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들이 기꺼이 정년퇴직을 해줬다면 사회도 그들에게 무언가를 줘야 한다. 나는 그것이 새로운 직업을 찾아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지금, 100년 동안 똑 같은 일만 해올 수는 없는 일이다. 제 2의 직업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 지고 있으며 제 2의 직업을 찾도록 돕는 수업과 제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책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노인도 단순 노동과 아이를 돌보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 노인 대학에서는 직업 반과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확대해 노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즉, 정년 퇴직의 나이를 유지하되 그들을 위한 다른 정책을 피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토의 과정에서 일본이 고령화 사회로 나아감에 따라 적절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 일본을 선례로 삼아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중심적인 경제로 대부분이 회사원이다. 그러나, 일본은 가업을 물려받아 긴 시간을 이어오는 집안이 많다. 이러한 풍토 덕분에 일본인들은 노인을 장인과 존중의 시선을 바라본다. 따라서 한국은 한국만의 새로운 노인 인식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최○수

: 정년퇴직의 기준을 낮추는 것은 분명히 사회적 효율성을 높인다.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적으로만 평가한 것이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인간을 위해서 '비효율'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기대 수명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정년퇴직의 기준 나이를 낮춘다면 앞으로 더 많은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기준에서 더 낮추는 것은 반대다. <나무>에서 노인의 대사처럼 “너도 언젠가 노인이 될 게다”를 새겨두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로 노인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20 년 11월 4 일

참가자대표 : 윤○영

북클럽 5주차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소(小)토리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11월 11일(금요일) / 장 소 : 사회경영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과방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고○주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권○성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윤○영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최○수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5주차></p> <p>: 나무 - 노인층의 복지를 청년층이 부담해야 하는 이유와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해 평가. 청년 세대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재,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책의 내용에 근거해서 평가. 팀원들의 의견에 대한 토의.</p> <p>고○주</p> <p>: 청년 세대의 노인층 복지 부담과 관련해서는 동의하는 편이다.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는 현시점, 먼 미래를 내다보면 노인이 주를 이루는 사회가 되겠지만 당장 가까운 미래를 고려하면 사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에 청년들이 노인들을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지금부터도 노인 부양과 관련해 청년과 국민연금 등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나 복지관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p> <p>앞서 잠시 언급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차등 지급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시점을 고려했을 때 청년들이 아무리 세금을 부담할지언정 급속도로 진행되는 초고령 사회를 뒷받침하기란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때 민주적이고 모든 사회가 상생하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더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이 점을 고려하면 소득분위 정하거나 국가 요금제 등의 시스템이 도입돼 국민연금도 상황에 맞게 분배가 되어 한다고 생각한다.</p> <p>책을 바탕으로 바라본 노인 인구 증가 현상과 그들의 부양 문제에 대해 말해보자면 청년은 노인이 되지만, 노인은 청년이 될 수 없다. 이때 노인의 수가 아무리 많을지언정 책에서처럼 노인은 신체적 한계 앞에서 청년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나는 이러한 점 때문에 청년이 어느 정도는 노인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동시에 퇴직 연령 늦추기,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등을 고려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p>							

한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청년이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도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었다. 이때 나의 경우 우리 부모님의 조부모님 부양 문제를 봤을 때 결국 친자식, 내지는 청년들이 부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기에... 나 또는 청년들이 어쩔 수없이라도 노인층을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것 같다.

사실 이런 문제를 나누는 것은 우리 4명에서 만 그칠 것이 아니라 청년 전체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해서 앞서 얘기가 나왔던 '대학 필수교양 내 노인과 관련된 과목 추가'라는 의견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다.

권○성

: 노인층 복지를 청년이 부담하는 것이 너무 큰 부담이며 반감이 커질 수 있다 생각한다. 그렇지만 노인이 퇴직하고 소득이 없다면 청년이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시기는 더 빨리, 금액은 더 많이 내야 한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으며 언젠가 국민연금만으로도 부족할 때가 올 것이기에 그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책에서도 노인의 비율이 높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 사회에서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기준에 있어서 비정상인이 더 많아지면 기준이 바뀌게 되며 정상이 된다고 생각해 노인이 청년보다 더 많아지면서 사회에 귀속될 것이 아니라 주류가 되며 무언가 형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생각한다. 젊게 살아가는 요즘 시대에 노인들을 무기력하고 능력 없는 이미지로 단순화 시키는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청년보다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더 많은 지혜와 힘을 가진 사람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윤○영

: 노인층의 복지를 무조건적으로 청년이 부담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진다. 현재 한국 사회는 노인 인구 증가율에 비해 청년의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노인 인구 비율은 청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 연금도 그렇다. 지금의 청년세대들은 국민연금을 당연하게 여기며 내는 게 사실이지만 과연 이 청년들이 노인이 됐을 때는 자신이 낸 만큼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현재는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노인이 많아지는 추세다. 따라서 노인을 규정짓는 연령이 상향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무' 속에 표현된 노인은 진짜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인공은 책 속에서 노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인들도 노인의 범주에 해당하는 나이가 된 탓에 노인의 취급을 받고 있으니 노인 연령 상향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또한 노인 중에서도 국민연금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소득분위처럼 상황에 맞는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의 세부내용이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것 자체에는 큰 반감을 가지지 않지만, 초고령 사회에서 부양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긴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인력이 더 늘어나야 하지만 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은 노인 복지사 보다는 청소년 복지사를 더 희망한다. 이것이 더 많은 편견을 야기할 지도 모른다. 따라서 해외 실버 타운을 선례로 요양원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최○수

: 우리가 누리는 사회적 인프라는 이전 세대들이 일궈온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답의 차원에서 우리는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노인층의 복지를 부담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으로서 어른에게 표해야 할 존중의 의무 차원에서다. 수지타산적으로 노인층의 복지를 우리가 왜 부담해야 하는지를 묻기보다 감정적인 차원에서 남의 조부모를 나의 조부모처럼 아끼고 복지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나무>와 같은 사회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상황을 개혁하기 위해 국민연금 비용 대폭 하락 등의 급진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은 반대한다. 서서히 조율하는 것에는 찬성한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일대일로 케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인 요양 시스템은 유지하되 요양원을 증설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 요양원의 프렌차이즈화도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경우에는 요양원의 브랜드가 직영점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정책의 핵심은 노인 요양의 양을 증가시키면서도 질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음식 사업이나 편의 사업처럼 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인식 개선 또한 필요하다. 현재 노인 요양원은 늙고 병든 사람들만 간다는 인식이 강해서 노인 사이에서도 가기 꺼려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대일 케어로만 요양을 감당하다 보니 청년층의 부담도 늘어난다. 악순환을 끊기 위해 요양원에 대한 인식 개선 마케팅 및 실질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요양원 내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여가 프로그램을 신설해 노인들이 요양원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을 단순히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수준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

나아가 청년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처한 '불편한 진실'을 직접 마주할 필요성이 있다. 전반적인 국민의 생활 수준이 나아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일부 노인들은 거동은 물론이고 끼니나 목욕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요양원은 이런 상황에 처한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 이런 인식 개선은 교육으로 실현해야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사고와 표현'처럼 노인에 관련된 필수교양을 개설하거나 고등학교의 의무 봉사 시간 중 일부를 요양원에 할당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2022년 11월 11 일

참가자대표 : 윤○영

북클럽 6주차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소(小)토리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1년 11월 18일(금요일) / 장 소 : 명동 카페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고○주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권○성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윤○영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최○수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6주차> : 선량한 차별주의자 - 일상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해 온 차별적 표현들과 그 경험에 대해 발표. 장애인 이동권을 어디까지 보장해 줘야 하는지에 대한 토의. 팀원들의 의견에 대해 서로 평가.</p> <p>고○주 : 사실 난 스스로를 편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난 학기 알바를 하면서 나도 편견이 가득한 사람임을 알게 된 일화가 있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그저 매너 없는 손님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한... 일명 진상 행동을 한 손님이 있었다. 이때 나는 그를 보며 '장애인 이라서 그런가?'라고 생각하고 말았다. 나는 이때 은연중 장애인이라면 자기중심적이며 비장애인 대비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왔음을 깨닫고 스스로에게 실망감을 가지기도 했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의식을 했던, 못했던 누구나 마음속에 본인도 모르는 차별이 내재 돼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p> <p>장애인 이동권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지와 관련해서 얘기해보면 일단 장애인은 배려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유명한 슬로건처럼 비장애인과 비교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즉 비장애인에게 맞춰진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의 배려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때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해 말해보자면 비장애인 입장에서 지금의 시위는 꽤 공격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이 시위를 옛날 여성 인권을 추구할 때와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여성들이 '그렇게 라도' 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현재 전국장애인협회 회장님도 '어쩌면 공격적인 방법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말했으니 말이다. 비장애인은 출근길 지하철을 타지 못하는 불편함에 눈살이 찌푸려질 수 있겠으나 그 시간 그 공간에서 절박한 목소리를 외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한번쯤 귀</p>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도 있듯이 비장애인이 장애인은 100% 이해하는 것이 어떠한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이 호소하는 불편에 좀 더 귀 기울였으면 한다. 또 앞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배려에 대해서도 말했었는데 이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적당한 ‘매너’로 장애인을 대하자는 것이다. 나는 이 매너를 학습하기 위해 제도적이고 교육적인 환경이 마련되길 바라며 특히 장애인에 대해 비추는 미디어도 변화돼야 한다고 본다. 요즘은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미디어로 학습경험을 쌓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때 미디어는 시대 흐름에 맞춰 장애인과 관련한 미디어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소비자가 다양한 미디어를 섭취해 폭넓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권○성

: ‘선량한 차별주의자’ 작가의 경험에서 나를 볼 수 있었는데 일상생활에서 꽤나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로 ‘결정 장애’이다. 행동이나 태도를 정해야 할 때에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일을 일컫는 말로 나는 보통 식사의 메뉴를 정하거나 어떠한 물건을 살지 고민할 때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며 결정 장애가 있다는 말로 보다 상황을 편하게 설명하고는 하였다. 그렇지만 의학계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질병이 아니며 신조어로서 ‘장애’라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는 뜻인데 나도 모르게 ‘장애’를 비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편견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되고 싶었으나 성인이 되면서 선입견이 크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다. 장애인은 불쌍하기에 도와줘야 한다는 무의식이 있으며 과한 친절을 베풀게 되면서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도움을 받기 싫어하지만 반대로 관심이 없으며 무시한다는 딜레마적인 요소도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일부 장애인은 특별한 대우를 받기 원하는 경우도 있다. 인간, 국민, 사회의 일원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이상부터는 요구하는 것이 커진다고 생각한다. 유튜브 중 유명한 시각장애인 유튜브를 보면서 점자에 있어 음료에 대한 구분이 없거나 키오스크 사용이 불가능한 영상을 보면서 앞선 경우들은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하기에 어떤 장애든 장애인 이동권은 물론 일상생활에 무리가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

윤○영

: 나는 아르바이트로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 스태프를 한 적이 있었다. 이 대회는 꽃과 식물로 작품을 만들어야하는 대회였기에 대부분의 출품작이 30~50cm 정도의 크기였다. 내가 그곳에서 맡은 일은 청소와 재료 분배였는데 대회의 참가자 중 한 분이 업무 외의 부탁을 당연시하며 자

신의 보호자가 있는데도 굳이 내게 출품작을 자신의 차로 가져다 달라고 하신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렇다 꽃이 하나가 꺾였는데 이 실수에 과한 불만을 내비쳤던 것이 기억난다. 이외의 모욕적인 일도 있었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저 비매너인 행동일 뿐인데 ‘자신이 장애인이라서 비장애인에게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문득 들었다. 물론, 장애인 모두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편협한 생각인 것을 알면서도 쉽게 고칠 수가 없었다.

장애인 이동에 대한 권리는 외국에 비해 한국이 현저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상버스의 경우에도 외국은 버스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이 버스에 올라오는 시간을 친절히 기다려주고 심지어는 그들을 도와주기까지 한다. 그러나 한국은 한숨을 쉬거나 불쾌함을 내비치는 반응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장애인을 도와줘야 하고 장애인은 약하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실정이며, 장애인을 보듬어주고 배려해야 한다는 학습된 의식적인 친절함이 과연 좋은 것일까? 따라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시위를 하는 급진적인 방법이 옳지 않음에도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는 바이다.

최○수

: 올해 미디어스쿨 학술제인 비상제에서 영상 뉴스를 제작했던 경험이 있다. 뉴스의 내용은 춘천의 ‘장벽없는 도시 사업’(장애인 이동권 증진 사업)에 관한 보도였는데, 이때 뉴스 내레이션에서 ‘일반인’이라는 표현을 썼었다. 일반인이라고 지칭하면 장애인을 ‘비일반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되어버리는데, 일반인이 차별적인 표현임을 간과했던 것이다. 다행히 막바지에 ‘비장애인’으로 다시 내용을 바꿔 녹음을 마무리하기는 했지만 뉴스를 제작했던 2주 동안 그 내용을 보면서 아무 기시감이 없었던 것으로 볼 때,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다른 차별적 표현을 사용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인 이동권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보장해줘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이동이 불편했던 적이 없어서 어느 만큼 보장해야 할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갑자기 정책을 확대해버리면 반발이 심할 것이기 때문에, 서서히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 만족도와 같은 지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면서 피드백을 통해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022년 11 월 18 일

참가자대표 : 윤○영

북클럽 7주차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소(小)토리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11월 25일(금요일) / 장 소 : 비대면 줌(ZOOM)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고○주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권○성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윤○영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최○수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7주차> : 선량한 차별주의자 - 비장애인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장애인 시위를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 토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어디까지가 옳은 것인지 자신의 의견 공유. 팀원들의 의견에 대해 서로 평가.</p> <p>고○주 : 장애인 시위를 보고 반대를 말하기보단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책을 보면 ‘특권’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 특권은 되게 커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특권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때 장애인 시위는 이 행위 자체가 비장애인에게는 피해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평소 비장애인이 누리던 특권을 보편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우리가 평소 말하는 ‘동등한 위치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어야 한다’는 말 자체가 이미 현실은 불평등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비장애인은 당연히 누려야 할 삶을 누리기 위해 시위라는 행위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p> <p>시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시선 개선(시각장애인 체험이나 슬로건 등)을 이미 시도된 바가 많았다. 하지만 그로 인한 변화 및 개선이 부족했기에 이제는 조금 더 공격적인 방법으로 나오는 것이라 생각한다. 마치 최근 있어진 이란 여성들의 인권운동처럼 말이다. 해서 나는 시위 자체를 지적하기보다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한다. 특히 정책적으로 복지를 정할때 복지 수혜자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실효성 문제도 빈번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장애인 복지 문제는 비장애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닌 장애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령 우리가 무신경</p>							

하게 건너는 횡단보도가 지체장애인에게는 조심스럽게 다녀야 하는 길인 것처럼 실생활에서 장애인의 어려움은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권○성

: 전장연 시위에 대해 지금도 모든 상황과 경위에 대해 알지는 못하지만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과격한 시위가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한 생각은 들지만 전장연 시위와 관련된 영상을 보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기에 이런 방법이 아니었으면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 투쟁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올까라는 말이 인상 깊게 남았다. 책의 주요 단어 중 하나인 '특혜'는 최근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도 볼 수 있었다. 스스로 특혜를 당연시하며 살아왔고 현재도 유효하기에 내가 지금까지 누리왔던 권리와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복지의 주된 뜻인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비롯한 복지는 개선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인식 자체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영

: 시위가 그들이 유일하게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라는 내용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나는 이 시위가 오히려 악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시위를 한다는 것은 결국 비장애인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으로 오히려 나쁜 시각을 심어 반감을 살 수도 있다. 또한, 정치인들이 장애인 시위가 시작됨에 따라 휠체어를 타고 출근하는 쇼맨십을 보여주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프로파간다로서의 능력은 없지만, 이는 전국장애인협회의 시위가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장애인들의 복지는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까지만 올려야 한다. 현재 한국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식이 굉장히 낮다. 그러나, 정부는 이 낮은 시민의식을 정책으로 채우려 한다고 생각한다. 기울어진 저울을 똑같이 맞춰 장애인의 복지가 실현되는 날이 와야 할 것이다.

최○수

: 피해를 주면서 시위를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설령 그들이 과격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지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목소리를 낼 권리는 없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 대해 평가하기보다는 미래를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과격한 시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을 이해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할 때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가 의견을 내야 변화한다.

우리 다수의 비장애인이 나서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그것이 그들에 대한 진정한 배려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평등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그러나 그 수준이 됐는지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직접 판단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개선하되 꾸준히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2022년 11 월 25 일

참가자대표 : 윤○영

북클럽 8주차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소(小)토리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12월 1일(목요일) / 장 소 : CLC 스테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고○주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권○성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윤○영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최○수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8주차> : <최종 정리> 딸에 대하여, 나무, 선량한 차별주의자 - 북클럽 활동 기간 동안 읽은 3권의 책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지 발표.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개인이 함양해야 할 도덕성과 가치관에 대한 토론.</p> <p>고○주 : 한국은 선진국으로 나아간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직도 그 속은 차별과 편견, 혐오, 갈등이 참으로 많은 것 같다. 우리가 이번 8주 동안 다뤘던 사회적 소수자, 즉 성소수자·노인·장애인 또한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중 우위를 따지고 선후를 가리는 것... 이것은 어쩌면 인간의 근본적 욕망일 수도 있으나 그 욕망을 앞세우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이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개인을 시작으로 사회 전반이 소수자를 소수자로 대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라는 집단으로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p> <p>이번 토론에서 다뤘던 세 종류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보자. 우선 성소수자의 경우 최근 그 인식이 많이 좋아진 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책 ‘딸에 대하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 아직은 성소수자들을 타자로 대하는 경향이 큰 것 같다. 이미 공존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고 국가는 그들을 배척하고 규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건강한 방법으로 공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p> <p>다음으로 노인이다. 사실 노인 문제는 이번에 다뤘던 카테고리 중 가장 크게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인류 전체가 성소수자 혹은 장애인이 될 확률은 측정할 수 없지만 노인이 될 확률은 100%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노인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미래를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기에 청년층 또한 앞장서 현재 한국 거주 노인들의 생활을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을 이해하기에 청년은 너무나 어리다. 이때 저번 토론에서도 언급됐듯 교육과정 내 노인에 관한 교육 커</p>							

리클럼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 사회학 분야로써 노인을 볼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이슈, 즉 교양으로써 노인에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해 말해보자면 몇 년 전부터 이동권 보장을 중심으로 장애인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때 장애 또한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영역이기에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면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비장애인이 규정한 복지가 아닌 정말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례로 비장애인의 목소리에 일찍이 귀 기울인 독일은 시내버스가 모두 저상버스이며 지체장애인이 버스를 타는 것에 대해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한다. 심지어 휠체어 이동이 편하도록 승하차 시 버스가 도로변 쪽으로 기울여지는 기능도 탑재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 우리 한국의 발전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앞서 말한 긍정적 해결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미디어 영역의 노력이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때 어쩔 수 없는 수익 구조 앞에서 선정적인 미디어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 존재하겠지만 이제는 사회의 발전 및 화합을 위해 공익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집단이 대학생이자 미디어 전공생인 나, 그리고 우리라고 생각한다. 이 토론을 기점으로 긍정적이고 풍부한 미디어를 생산해 수익 구조에서 벗어난... 올바른 미디어를 생산해 보자. 그동안 토론을 하며 생각의 폭을 넓히고 소통의 힘을 배울 수 있었다. 미래에 우리가 만났을 때 이 시간을 발판삼아 멋진 미디어 제작자들이 돼 있길 바라본다.

권○성

: 사람들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차별받는 것을 싫어하며 차별이 없다 생각하지만 모순적으로 많은 차별을 가지고 살아간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신념과 가치관이 따라가지 못하는 괴리감도 발생한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어쭙잡은 공감과 관심으로 이해한다 말하며 사회적 약자를 안쓰럽고 불쌍한 존재로 생각한다.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는 우리나라 사회의 일원으로 소외와 차별이 아닌 이해와 배려로 공생해야 한다. 스스로 심비우스 북클럽 활동을 통해 약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사회적으로 성장했는지 돌아보려 한다.

우리 모두 성소수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었던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세대, 문화, 종교 등의 문제로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는 존재한다. 그러나 서로의 자유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닌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듯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다양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보다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는 태도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보자.

요즘 정말 많이 사용하는 은어 중 하나인 ‘꼰대’는 노인을 뜻하는 말이다. 문제는 언제 어디서든 ‘꼰대’라는 단어를 잘못 남용하여 타당한 지적임에도 마음에 안 들거나 자신보다 연장자라면 ‘꼰대’로 몰아가는 경우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가벼워지면서 노인과 관련된 문제들을 쉽게 보며 무시한다면 나비효과처럼 언젠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국가는 노인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지하며 필요한 복지와 제도들을 만들고 우리는 노인과 소통하며 단순 현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

“특별한 주인공보다 평범한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공익광고에 출연한 발달장애인이 한 말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바꾸기 위해 만든 광고에는 주인공이 아닌 누군가의 이웃이 되길 원한다. 많은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집 밖에 나오기 힘들었던 장애인의 현실을 보면 ‘평범’을 얼마나 원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주변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단어 선택부터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제도까지 개선을 해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우리 모두 언제든 내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노인이 되어가며 불의의 사고를 당해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당연한 것들은 사회적 약자에게 당연하지 못한 ‘특혜’이며 차별이 아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나의 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길 소망한다. 또한 미디어 전공생 입장에서 미디어의 파급력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에 언론과 방송이 조성하는 분위기 속 편파적이지 않고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번 활동이 나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장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윤○영

: 심비우스, 공생. 현재 한림대학교의 교육 목표는 심비우스다. 현재 사회에서 그 누구보다 공생하는 인간이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어쩌면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꿈꾼다는 우리 팀(소토리)의 목적은 심비우스 북클럽의 운영원리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남길 만큼 인간의 사회, 정치적인 모습을 강조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에 대한 정의는 현대 인간과 큰 차이를 보인다. 현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둘러싸여 주변 사람들을 위하지도, 도움을 주지도 않는다. 이런 사회에 살면서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더 궁지에 몰린다. 이러한 세태에 ‘공생’과 ‘협력’하는 새로운 인간상은 꼭 필요하다. 소토리라는 우리의 팀이름에 걸맞게 지난 8주간 우리는 그들의 작은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 북클럽 활동을 해왔다. 책을 읽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그들의 고충이 책으로나마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었다.

성소수자는 우리가 진행한 세 분야의 사회적 약자 중 사회적으로 가장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가장 남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 같다. 언젠든 늙으면 노인이 되고, 어떤 사고를 당하면 장애인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절대 동성을 사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성소수자와 이성애자 간의 간극을 더욱 뚜렷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런 맥락에서 성소수자들에게는 ‘무던함’을 보이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배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아웃팅을 했을 때, 자신의 동성 애인을 소개해줬을 때, 무던하게 그 상황을 대응하는 것이 성소수자와의 공생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노인 인구의 확대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노인의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청년 세대가 부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노인이 된다. 결국 그들은 자신이 노인이 돼 빛났던 자신은 이제 없고 경제 능력이 잃어간다는 것에 스스로 자괴감을 가장 많이 느낀다. 따라서 노인과 노인이 아닌 사람들 모두를 대상으로 노인이 되는 나를 준비하는 과정, 현재의 삶을 의미 있게 살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노인을 더 이상 사회적 약자로 보지 않고 동등한 사회 속 인간으로 대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상이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말아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서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디어들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귀 기울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장애인의 성장 가능성과 특별함에 기대를 걸게 한다. 때문에 장애인 관련 다큐, 인터뷰 등을 통해 실제 장애인의 삶과 모습을 접하며 그들을 이해하고 함께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사랑을 존중해 줄 사람이, 나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에게 대화 한 마디 건네줄 사람이, 저상 버스에서 자신이 올라가는 시간을 기다려 줄 사람이 절실하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개인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모여 ‘사회적 약자’가 늘어나는 세상이 아니라 ‘사회적 평등’을 이루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작은 소통으로도 우리 사회는 훨씬 따뜻해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최○수

: 우리는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특히 이분법적 사고가 더욱 만연하고 있는 요즘은 주류와 비주류가 나뉘는 경우도 빈번하다. 비주류에 속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로 성립한 서양의 국가들과 다른 성향이다. 혈연과 지연 등 인연의 유대감으로 성립한 공동체주의적 국가이다. 물론 이런 연고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경로로 사회적 약자

	<p>문제를 해결해야 한다.</p> <p>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설불리 사회적 제도로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면 사회 구조 자체가 뒤틀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제도가 선행하기보다 인식 개선이 선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제도의 변화가 인식의 변화를 이끄는 것보다 인식의 변화가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관용의 태도를 키우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나는 아직까지도 동성애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들과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p> <p>대한민국의 뛰어난 의료기술과 저조한 출산율은 우리를 고령 사회로 만들었다. 우리는 많아지는 노인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산하기보다 어떻게 보살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관리 체계를 잡는 것을 넘어서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노인들과 유대를 나누는 공간이 더 늘어날길 바란다.</p> <p>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당장 이동권부터 해결해야 한다. 춘천이 현재 장벽없는 도시 사업으로 보도블록 개선을 하고 있는데, 춘천시와 장애인 협회의 간담회 등 다양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한국 전체로 확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p> <p>결론적으로 세 가지 문제 전부 ‘인식 개선 및 진솔한 대화’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공감한 이후에는 항상 실천하는 민족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솔직한 대화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공감하는 과정이다. 돈이든 권력이든 얼마만큼의 이익을 그들에게 주는가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그들을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같이 화합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는 미디어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미디어가 그들을 희화화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삼도록 미디어 제작자와 수용자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 제작자는 자신이 가진 미디어의 파급력을 항상 유념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 수용자는 미디어를 통해 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관심을 가지는 태도가 필요하고, 나아가 그들을 입장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역지사지의 태도와 관용의 태도가 될 것이다.</p>
--	--

2022년 12 월 1 일

참가자대표 : 윤○영